

## 21세기를 위하여 보건관리분야, 무엇을 할 것인가?

이선희

이화의대 예방의학교실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Drucker(1974)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새로운 밀레니움을 앞두고 세계적으로 또는 사회 각 분야에서 ‘미래에 대한 비전모색’만큼 현재 각광을 받고 있는 일은 없는 듯 하다. 오늘 이시간 반세기 세월속에 성장해온 예방의학 역시 이러한 비전제시의 시대적 조류에 동참하게 되었으나, 비전이라는 어휘가 주는 모호함과 발표자의 역량부족으로 인해 애기의 주제를 굳이 ‘비전’이라는 용어보다는 예방의학을 전공하는 학도로서 예방의학 발전을 위한 몇가지 제언의 말에 국한하여 부족한 소견을 피력해보고자 한다. 또한 발표자의 전공은 보건관리 분야이기 때문에 예방의학중 보건관리를 전공하는 의사집단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우선 예방의학학회 50주년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타 전문학회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 장구한 연륜을 축적하면서, 경제논리가 우선시되던 척박한 세월속에서 국민보건의 중요성과 그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해온 점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며, 후학으로서 선배들의 슬기와 용기에 고개숙여 존경을 보낸다. 그동안 장년으로 성장하면서 연구인력도 증가되고 천착해온 연구과제에 있어서도 국민 보건의료체계가 효과적, 효율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제들을 연구,제시해오므로써 양적 수준에 있어 괄목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50년을 주로 양적 성장을 해온 시기였다고 한다면, 양적 팽창이 전혀 다른 질적 존재로의 비약을 가져오듯 이제 새로운 질적 도약

을 다짐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한다.

보건관리 분야의 질적 도약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는 현재 사회속에서, 또는 보건의료분야에서 보건관리 분야를 전공으로 하는 의사들이 담당할 역할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를 헤아려볼 필요가 있다. 보건관리 분야는 인간의 건강문제가 사회속에서 갖는 위치와 의미, 상호간의 관계를 과학적으로 구명하고 국민건강증진에 가장 효과적인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안모색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학문체계와의 연계가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는 기본적인 동의가 이루어진 부분으로 생각된다. 그동안은 이러한 문제를 다루던 전문학회가 예방의학회 등에 불과하였으나 양적 발전의 결과로서 보건행정학회, 보건경제학회, 병원경영학회 등 세부 분야에 대한 전문학회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들 학회들의 출현은 학문간의 연계를 원활히 하고, 현재 당면한 보건문제를 보다 심도있게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질적 발전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반대로 기존 예방의학회 보건관리 분야의 정체성이 도전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자신의 내용을 담지해야 하는데 예방의학 보건관리에서는 이들 학회들과 차별적으로 어떤 기능과 역할을 담지해낼 수 있겠는가? 이는 결국 정체성의 문제로서 정체성이란 예방의학 보건관리학도의 고유한 역할, 나아가서는 사유와 분석을 포함하는 학문체계의 정립을 의미한다. 흔히들 보건학은 종합학문이라고들 하며 실제로도 보건문제와 현상을 분석하는데 있어 심리학적, 사회학적, 경제학적, 경영학적 방법론과 설명체계를 차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타학문으로부터의 차용이 차용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인간의 건강을 다루는 의료인의 관점에서 내면화되고 재해석되어 독특한 우리의 시각과 사유체계, 분석체계로 질적 변화를 모색해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극복의 대상은 타학문뿐만 아니라 외국의 보건학 사례와 학문적 성과를 그대로 차용해온 것까지를 포함해야 할 것이며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우리의 학문적 목소리를 찾고자 얼마나 노력했는지, 현재 그런 우리의 목소리가 있거나 한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되돌아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정체성의 문제는 학문의 내용과 방법에만 국한되지 않고 보건관리 전공자의 역할이나 나아가서 진로의 문제에까지 확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다. 과거에는 이

를 전공으로 하는 연구자가 적어 연구나 활동의 어려움은 있었으나 경쟁 또한 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전공자가 늘었을 뿐만 아니라 타분야 전문가들의 보건분야에 대한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쟁속에서 보건경제의 문제는 경제학도 출신의 전문가가, 병원경영의 문제는 경영학도 출신의 전문가가 우위에 있다고 한다면 보건관리를 전공한 의사는 어느 분야에서 경쟁적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인가? 분명 다른 어느 전문가보다도 인간의 건강에 대해 오랜 시간을 공부하고 생각해온 전문인으로서 이들 분야에서도 탁월하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인바, 이에 대한 역할을 찾아내려는 노력, 역시 정체성 찾기의 한과정으로서 시급하게 모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기능과 역할의 정당성은 결국 그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좌우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건관리 전공의 의사가 각 분야에서 자신들의 능력을 탁월히 발휘할 수 있도록 수련과정의 질적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다.

현재 보건관리 분야에 대한 수련과정을 보면 수련의 수준과 내용이 수련기관에 따라 천차만별이며 심지어는 학부 예방의학 교과과정에 있어서도 가장 이견이 첨예한 곳이 보건관리 분야인 실정이다. 따라서 가장 선결과제는 수련과정과 수련내용에 대한 합의와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이를 위해 우선 수련기관 담당자들의 노력이 뒤따라져야 할 것이며 교육과정에 대한 자료의 공동개발이나 공동 교육과정 운영 등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공의 수련과정 작업은 예방의학 전체 차원에서 진행중이기 때문에 관리분야 내부에서 따로이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전공의 연수교육은 공동교육과정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바람직한 모델로서 좀더 발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정체성의 확보에 더하여 다음으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변화하는 사회와 증대되는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학회의 좀더 적극적인 대사회(對社會)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은 학회구성원들의 친목과 학술 교류에 주안점을 두어왔으나 보건관리 분야는 응용성이 강한 분야인 만큼 연구의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홍보, 나아가선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전문학회로서의 입장 표명 등 외부로 향한 활동도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사회 각 분야가 마찬가지로 있으나 보건의료 역시 현안 과제가 산적해있으며 사안에 따라 장기간

미결인채로 비생산적인 논쟁만 되풀이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나 전문학회로서 그 간 얼마만큼의 역할을 수행해왔는지에 대해 회의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

아울러 참여인력의 수가 늘어난 만큼 대상의 범위도 좀더 확대되고 다양화 되어 종래 다루어왔던 의료보험이나 의료체계의 효과성, 효율성에 대한 문제, 그리고 최근 새롭게 대두되는 건강증진 분야외에도, 의료윤리 분야, 의료사고와 분쟁, 의료법 분야, 의료와 매스컴, 의료에서의 의사소통, 의료마케팅 등 사회의 욕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주제개발과 관심이 모색되어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도 새로운 주제나 방법론에 대한 학회의 개방된 태도가 전제되어야 하며 학회운영의 민주성과 학회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방안 모색 등 체질개선에 대한 노력이 뒤따라져야 함은 물론이다.

무릇 비전의 제시는 그분야에서 각고의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의 몫이라고 할때 이분야에 입문한지 얼마되지 않는 발표자가 감히 학회의 방향을 논하다 보니 주제넘고 단견의 여지도 많은 소견을 제시한 것에 선후배회원님들의 질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나 학회를 사랑하는 마음의 토로로 양지해주시리라 믿으며 토의를 맺는다.